

## 8. 기도가 응답 되나요?

이사야 55장 8-9절,

8.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9.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로마서 8장 28절

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느니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모든 질문에 다 답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특히 기도 응답에 대한 주제를 다루면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기도는 응답 됩니다!”라고 가장 확실하게 말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은 이런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미녀와 변호사가 나란히 기차에 탔다. 한참을 지루하게 가던 변호사는 시간도 때울 겸 그녀에게 재밌는 게임을 하자고 제안을 한다. 그러나 그 미녀는 피곤하다며 그 게임을 공손히 거절했다. 그런데, 그 변호사는 정말 재밌고 쉬운 게임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그녀를 괴롭혔다.

변호사 : 이 게임 정말 쉬워요. 그냥 질문을 해요, 그리고 대답을 못하면, 서로 만원을 주는 거죠, 재밌지 않아요?

다시 그녀는 공손히 거절을 하고, 고개를 돌려 잠을 청했다.

그때 변호사가 다시 말했다.

변호사 : 좋아요, 좋아! 그렇다면, 당신이 대답을 못하면 만원을 나에게 주고, 내가 대답을 못하면 50만원 주죠!

게임에 응하지 않으면 끈질긴 이 남자에게서 벗어날 길이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던 미녀는 50만원이라는 말에 찬성을 하고 말았다.

변호사 : 달에서 지구까지 거리가 얼마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바로 지갑에서 만원을 꺼내 주었다.

그리곤, 그녀가 물었다.

미녀 : 언덕을 오를 때는 다리가 세 개고 언덕을 내려 올 때는 다리가 네 개인 게 뭐죠? 이 질문에, 그 변호사는 당황했고, 노트북을 꺼내 컴퓨터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뒤졌다. 그러나 답은 없었다. 잠시 후, 그는 그가 전화할 수 있는 모든 동료에게 전화를 했고, e메일을 동료들에게 보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결국 대답을 찾지 못했다.

한 시간 뒤, 결국 그는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으며, 그 미녀를 깨웠다. 그러고는 그녀에게 조용히 50만원을 꺼내 주었다. 그러자, 그녀는 고맙다는 한마디를 하고, 다시 잠을 청했다.

잠시 열을 식히던 변호사, 그녀를 깨우더니 물었다.

변호사 : 아니, 대체 답이 뭐죠?

그러자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만원을 꺼내 주었다. 그리곤, 다시 잠을 잤다.

모든 것을 알고 싶지만, 그 누구도 답해 줄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을 때, 그것보다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우리 인생의 무거운 문제들을 안고 그 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요? 실제로 우리는 기도하므로 응답을 경험하고 기쁘게 간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얻지 못한 응답을 ‘지연된 응답’ ‘거절된 응답’이라는 말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왠지 개운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음을 부인하지 못하지요.

제가 생각하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응답에 대한 이런 정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응답이란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나의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살 아계시다고 생각한다.”**

오늘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저는 여러분들에게 2가지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하나는, 응답의 기준이 무엇인가?  
다른 하나는, 어떻게 우리는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가?

### 응답의 기준을 분별하는 법

먼저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해야만 하는 것 사이의 구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의 능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기도하는 문제가 해결되면 아무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양파처럼 생겼다.”고 표현을 합니다.  
한 껌풀의 문제를 벗어버리면 또 한 껌풀의 문제가 나오지요.  
사실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가 본질적인 해결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는 것이죠.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응답이 아닐까요?**

사도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 말입니다.  
이 ‘모든 것’에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언젠가 들었던 고세진 총장의 설교를 보니 이런 제목이더라고요.  
“문제 속에 해답이 있다!”  
우리 삶의 해답, “응답”은 바로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문제 속에 있습니다.

그 분의 표현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안고, 인생의 고민을 안고 삶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자신도 어려울 때 그런 생각을 해 보았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죽고 나면 더 문제가 심각해 질 것 같더랍니다.

일단 목사가 자살 했다는 것, 남겨진 자식들의 삶,

정리해야 할 것들, 아무리 생각해도 안 죽는 게 낫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살기로 했답니다.

이제 조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좌절을 겪는 많은 부분들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내가 원하는 인생”이, 내가 “살아야 하는 인생”과 동일한가요?

**조금 다른 표현을 쓴다면,**

**여러분들이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는 “그 무엇과” 궁극적인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일치하나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응답의 문제를 이야기 할 때는,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communication”이라는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응답”이라는 말이 “give an answer”라는 뜻이지요. 어떤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이란 대답을 구하는 자와 대답을 주는 자, 필요를 구하는 자와 필요를 채워주는 대상 간의 교통이 잘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응답 받기 위해서는 “아멘”을 잘 해야 된다는 훈련을 받기도 하지요. 설교를 하면서도 반응이 없으면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부흥사들이 설교하면서 잘 쓰는 표현 중에 “아멘 하는 사람만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소리가 커집니다.

어느 교회 원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80이 되셨는데도 정정하게 활동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은퇴하신 후에도 담임목사님이 안 계실 때면 예배의 마무리와 광고를 하고 축도를 하신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는 그만 두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교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내가 그 동안 많은 말들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에 좋은 부목사님들도 많고, 이제는 강단에 안 서려고 합니다. 그 동안 노인이 이야기 하는 것 때문에 힘들었죠. . .”

이렇게 이야기 하는 동안 교인 중에 어떤 사람이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이 교인의 아멘은 “좋은 부목사님들이 많다는. . .” 부분에 대한 것이었는데 묘하게도 타이밍이 “이제 강단에 서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터져 나온 것이지요.

그 소리에 목사님의 얼굴이 빨갛게 변했고, “그래 그 동안 참느라고 수고했다. . .”라고 말씀하시며 서운하게 내려오셨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타이밍이 맞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선한 의도가 하나님의 뜻과 시간에 맞지 않는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겠지요.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는 기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그 응답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때를 무시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이 심각한 문제들을 인도하실 지에 대한 기대감 보다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는 조바심이 더 하다는 사실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핸드폰과 기도의 차이점”에 대하여 누가 글을 올려놓았더군요.

1. 핸드폰은 잘해봐야 한 달 200분 무료 통화지만,

기도는 한번 가입하면 평생 무료 통화다.

2. 핸드폰은 환경에 따라 통화 성능이 결정 나지만,

기도는 이리듐보다 성능이 좋아서 어디서나 가능하다.

3. 핸드폰은 공공장소에서 사용하기엔 눈치 보이지만,

기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용 가능하다.

4. 핸드폰의 사용내역은 통신 회사에 남지만,

기도의 사용 내역은 하늘나라 책에 남는다.

5. 현대의 핸드폰으로는 한사람 밖에 통화할 수 없지만,

기도는 원한다면, 한 번에 수많은 사람을 동시에 통화하고 나눌 수 있다.

(손 잡고도하며. 돌아가며. 통성으로 하며. 통화방법도 각양각색)

6. 핸드폰의 침묵은 쓸데없는 상상을 일으키지만,

기도할 때 침묵은 주님이 알아서 접수하신다.

7. 핸드폰의 업그레이드는 사람의 시선을 끌지만,

기도의 업그레이드는 하나님의 시선을 끈다.

8. 핸드폰은 부재중일 때 받는 사람이 없지만,

기도는 하나님께서 항상 기다리시고 받아주신다.

이제 우리는 “응답”에 관한 한 가지 명확한 기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응답이란 하나님과의 “교통”의 문제이구나!**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내가 받는 것이구나!**

**우리가 응답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만, 기도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의 영역이구나!**

내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고, 내가 지금은 깨닫지 못해도 절묘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구나!

이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나요?”라는 물음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 당신의 기도는 분명히 응답됩니다.”

그러나 그 응답을 준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내가 생각하던 응답이 지연될 때,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오늘 우리 신앙과 기도의 문제입니다.

### 응답을 기다리는 법

이사야 55장의 본문을 보세요.

8.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9.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성경에 있는 신앙인들의 고백,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간증을 보세요.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과 길을 보고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 것 이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제롬 댜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라는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성서의 이런 가르침을 거부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명백한 패턴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가 틀리기를 바랐습니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다림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가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깊고, 높은 뜻이 있음을 인정하지 못하면서 과연 우리들이 기다릴 수 있을까요? 그 기다림이 우리 인생의 필수과정임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들이 응답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찌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제롬 댜리는 그의 책에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응답을 기다리는 10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 1. 지금 이 순간을 껴안으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기다림”이 우리의 인생에서 장애물이 아니라, 거쳐 가야하는 삶의 수단이 될 수 있고, “기다림”이 우리가 정복해야 할 적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하는 친구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지금 이 순간을

버리지 말고 꼭 껴안아보라는 말입니다.

얼마 전 한 젊은 노총각 집사님의 사업장을 심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심방을 가자고 했지요. 사업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크게 부도를 맞아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분의 십일조와 감사헌금을 보면서 다 해결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이 제일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궁금했지요.

처음 사업을 시작하고 많은 돈을 벌고, 재산도 늘리고 사업도 확장을 했지만, 지난 몇 년이 너무나 힘이 들었고, 그 시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믿음을 소홀히 했던 때와 시기를 같았습니다.

사업을 하는 그 분에게, 이제 신앙생활과 봉사를 열심히 하는 이 시기가 무척 길게 느껴집니다. 너무 힘든 시기를 지나가면서,

그 분의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자신을 철저하게 훈련시키시고 깨닫게 하시며, 앞으로 어떻게 물질을 관리하고 써야 할지를 깨닫게 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시간들이 결코 필요 없이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귀하게 꼭 껴안고 가는 의미 있는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을 보며 이 순간을 지나가는 사람은 지금도 응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한 가지 예를 더 찾아볼까요?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길목에 가장 위대한 제사장이요 예언자요 사사였던 인물이 사무엘이입니다.

그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가 눈물로 기도하며 얹은 아들입니다.

사무엘 상 1-2장에 보면 한나가 얼마나 자식을 구하며 울며 기도했는지가 나옵니다.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술주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울며 기도했던 한나였지요.

그러나 한나의 기도가 얼마나 공허 했을까요?

사랑하는 남편은 다른 여자였던 브닌나를 통해 계속해서 아기를 낳는데. . .

성전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 그러나 버릴 수도 없는 소망 가운데서 울부짖는 한나의 모습을 생각해보세요.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수년 동안의 침묵 가운데서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을 통해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하게 되지요.

사무엘 상 1장 11절의 말씀,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죽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의 아들일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사사요 제사장인 사무엘은 기다림의 시간  
을 통한 하나님의 서원으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큰 만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소원이 컸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이지  
요.

## 2.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찾으세요.

혹시 여러분들은 안개가 짙게 깔린 길을 걸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순간이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보려고 하기 보다는 주변에서 일어나  
는 일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무언가를 볼 수 있을 때에는 시야에 의지하더니,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니 소리를 들으려고 더욱  
집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심조심 앞으로 나아갑니다. “저 앞에” 무엇이 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  
눈앞에 보이는 길을 따라 나아갑니다.

우리는 불과 두세 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 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미래에 대한 확실한 해답을 들을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눈앞에 바로 보이는 그 길을 가고 있으며, 얼마 지나지 않으면 짙  
은 안개가 걷힐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밝은 태양 앞에서 안개는 말라버리고 말 것입니다.

안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부드러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그 분의 손길을 느끼는 것입니다.

지금 분노하고 조급해 하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시나요?

솔직한 이야기를 하나 할까요?

우리 교회에서 매일 새벽 5시 30분이 되면 어머니 기도실에서 성만찬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의 헌신을 다짐하기 위해 부서별로 매일 성만찬을  
합니다.

제가 인도하는 순서를 빼고는 담당 목사님들이 다 돌아가면서 집례를 합니다.

4월 중순의 어느 날, 새벽 예배 실에 가기 전에 성만찬이 잘 진행 되는지 궁금한 생각이 들었  
습니다. 머리도 감지 않았기에 모자를 쓰고 면바지를 입은 채 나왔기 때문에 뒤에서 잠깐 보  
려고 들어갔는데 교인들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담당자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기다려도 올 것 같지 않았기에, 양해를 구하고 그 옷차림 그대로  
성례를 집례 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제 속에서 화가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새벽시간에  
성만찬을 잊어버릴 수 있는가?

아침 일찍 지방을 향해 가고 있었기에 출근 시간에 맞춰 전화를 하고는 모든 목사님들을 모이도록, 담당자는 사유서를 써가지고 설명하도록 지시를 하고 전화를 끊었지요.

모이는 시간까지 하루 종일 어떻게 혼내야 하나, 어떻게 군기를 잡아야 하나 고민을 하고 신경을 쓰느라고 정신이 없었지요.

어쨌든 화낼 전략을 짜 가지고 만났는데, 정작 그 사고의 주인공이 그 자리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허탈했지요.

그런데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놀라운 것은 딱 한번 일어난 사고에 제가 그 자리를 찾아 가지 않았더라면 교인들이 그냥 기다리가 갔을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막상 기다리던 교인들은 생각지도 않았던 담임목사와 성만찬을 하게 되어 좋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만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화를 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은혜가 있구나!

단지 내 앞에 닥친 감정으로 인해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는 것이구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말입니다.

다시 응답과 연결 지어 생각해 봅시다.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이 탈진해 가기보다는, 오히려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독특한 경험들을 발견하고 의미를 깨닫는 방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시험이라는 축복을 경험해 보셨나요?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세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웅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예를 들어볼까요?

구약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은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는 앗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므로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병으로 인하여 죽게 된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입을 통해 죽음이 선언되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주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약속을 받고 그 증표로 태양의 그림자가 해시계에서 10도가 물려나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하나님! 의로운 왕 히스기야에게 왜 이런 시험을 주시나요? ”

참으로 신기한 일은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고, 시험을 통과한 후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시험은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구나”

“그렇구나! 시험을 통해 우리들이 그 동안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날 수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보면 여러분들이 느끼고,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가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언젠가 비행기 사고가 났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vertigo” 현상 때문에 일어난 일 말입니다. 비행기를 조종하다보면 인간의 감각을 늘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방향감각을 상실하게 되고 바다를 하늘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간다고 생각했는데 바다에 추락하여 나는 사고가 있지요.

그래서 비행기 조종사는 늘 “계기판”을 주시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계기판을 신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계기판을 보면 이 비행기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어느 수준으로 기울어지고 있는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 얼마나 높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전투기는 혼자서 비행을 하기 때문에 여객기처럼 주변을 살펴줄 사람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이 판단을 해야 합니다. 계기판을 보아야 치열한 전투 후에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치열한 삶의 전투를 경험하고 있으신가요?

사방을 분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방황하고 계신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삶의 고통과 치열함 가운데서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여러분의 영적 수준을 높여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보다 깊은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려 보십시오.